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등 사업자 책임 강화

부당한 면책조항 대거 손질
'대금지급 보류' 사유 구체화
"디지털 거래환경 신뢰 제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겨온 약관들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을 바로잡은 것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제3자의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

그램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공정위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중개 관리자로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용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던 조항 역시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시정되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등으로 이유로 최대 60일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유를 구체

화했다.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팡이머니' 등이 자동 소멸되던 쿠팡의 약관은 무상 포인트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고치고, 결제 실패 시 사업자가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임의 결제하던 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순서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던 조항,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차별하던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윤철 부총리, 바이오·뷰티 산업 현장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청주시 오송 바이오밸리 이니스트에스티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에 참석,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5월 분양물량 2만 세대 육박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 규모
수도권 1만4330세대... 74% 차지

다달일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2만 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9278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968세대) 대비 76% 급증한 규모다. 일반분양 역시 8344세대에서 1만5495세대로 86%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330세대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이 6930세대로 가장 많으며, 인천과 서울이 각각 3954세대, 3446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씨밋더힐(1515세대),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세대) 등 정비사업 중심의 대단지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는 남양주시 왕숙2지구A1(812세대), 성남시 분당구 성남낙생

지구A1(1400세대),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7블록(473세대) 등 공공택지 및 신도시 중심 공급이 이어진다. 평택 고덕에서는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A31·A34·A35블록), 우미린프레스티지 등 다수 사업장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더샵검단레이크파크(AB22·AB23블록, 총 2800여 세대), 남동구 힐스테이트구월아파트파크(496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경남, 부산, 충남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은 거래 회복과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분양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분양시장은 전체적인 공급 규모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안성미 기자 smahn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 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 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별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다밸리 & 테크노블 & CM 주권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은행연초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중개자 및 고객 데이터)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지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 입장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폐쇄형으로 설정시 중도해지 불가)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고신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2+/0-순으로 구분됩니다.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NH투자증권

SSD 공급계약 지속... "가격 협상력 높아질 것"

>> 1면 'SSD 시장 상승...'서 계속

SK하이닉스 또한 SSD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321단 쿼드 레벨셀(QLC) 기술을 적용한 소비자용 SSD 'PQC21'의 공급을 개시했다. QLC는 하나의 셀에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해 3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TLC보다 고용량 구현에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에서도 고성능 TLC와 고용량 QLC를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AI 수요 전반에 대응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량 QLC 기업용 SSD에 강점을 가진 자회사 솔리다 임파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AI데이터센터와 AI PC스토리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SSD 시장이 단순 메모리 수요를 넘어 인프라 핵심 시장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社告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